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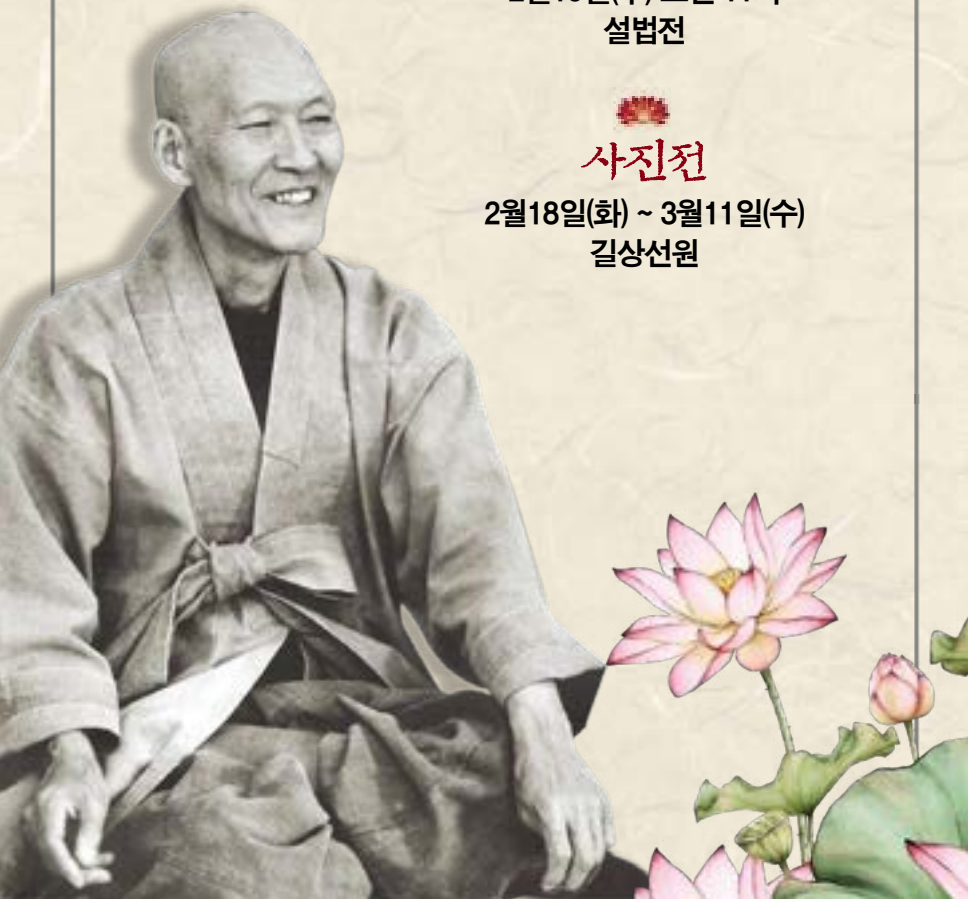


살아 있는
모든 이웃들이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법정스님


입적 10주기 추모법회
2월19일(수) 오전 11시
설법전


사진전
2월18일(화) ~ 3월11일(수)
길상선원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20. 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0 / 2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행복한 삶

스님 평안하소서	04	이시대의 연꽃 같은 영혼의 스승 比丘 法頂
산방한담	14	적은 것으로 만족하라
일기일회	19	때로 높은 봉우리 위에, 때로 깊은 바다 밑에
행복한 삶	29	행복한 삶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40	묵은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41	복 많이 지으세요
법정 스님의 숨결	45	한 생각 일으키면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48	이곳에서의 모든 일이 기쁘기만 하다
법정 마음의 온도	51	무소유의 참의미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53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8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2월 1일 발행 / 통권 300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이 시대의 연꽃 같은 영혼의 스승

比丘 法頂



1932년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에서 태어났다. 한국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인간의 선의지(善意志)와 삶과 죽음에 고뇌하며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1956년 통영 미래사와 지리산 쌍계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수행자의 기본을 다진 후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가야산 해인사 선원과 강원에서 수행하며 학문에 정진한 후, 1959년 자운율사를 계사로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1960년 통도사에서 <불교사전> 편찬 작업에 동참하였고, 1967년 서울 봉은사에서 운허 스님을 도와 불교 경전 번역에 동참하였으며, 불교계 언론과 유력한 신문에서 죽비 같은 글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1973년 함석헌, 장준하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회를 결성하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 1975년 젊은 목숨을 앗아간 제2인혁당 사건을 목격한 스님은 큰 충격을 받아 그 해 10월 본래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무소유 사상을 설파하며 자기다운 질서 속에 텅 빈 충만의 시기를 보낸다. 하지만 세상에 명성이 알려지고 끊임없이 찾아드는 사람들을 피해,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1992년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고 생명 중심의 세상을 명상하며 홀로 수행 정진하였다.

1993년 7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이유로 독립기념관, 창덕궁 부용정 연못의 연꽃이 모두 없어지는 기막힌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어이없는 심정을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는 글로 발표하며 다시 한 번 세속 일에 관여하게 된다. 1993년 8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준비 모임’을 발족하여, 1994년 3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첫 대중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지에서 뜻을 함께 하는 회원들을 이끌어 주셨으며, 스님의 무소유 사상에 감동한 길상화(故김영환) 보살이 7천여 평의 대원각을 시주하여 1997년 12월 14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창건되었다.’

스님은 폐암이 깊어진 뒤에도 침상에서 예불을 거르지 않았으며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며,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말씀을 남긴 뒤 2010년 3월 11일(음력 1월 26일) 길상사에서 입적(세수 78세, 법랍 55세)했다.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평소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스님은 마지막까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였고, 입적 후에도 남은 이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해준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1932년 10월 8일(음) 출생 ~ 출가전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서 박근배(朴根培)씨와 김인엽(金仁葉)씨의 아들로 출생. 우수영 초등학교,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전남대 상과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 1955년 8월 전국승려대회가 열리고 전국에서 불교정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혜원에서 생활하던 중 정화운동에 가담한 청년 박재철은 평소 인간의 역사와 삶의 고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입산출가를 결심함



행장

법명 : 法頂
(속명 朴材苗)

1955년 말 입산 출가

친구인 박광순, 김남선 씨 등이 1955년 11월 25일 박재철의 출가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 후 박재철은 당시 불교 정화의 주역이던 청담 스님(오대산 상원사에 머물고 계셨다고 함)을 찾아 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월정사의 어느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눈길로 인해 차가 막혀 갈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서울 안국동에 머무르고 있던 효봉 스님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행자 생활을 시작함

1956년 2월 ~ 1956년 6월

통영 미래사로 내려가 효봉 스님을 모시고 행자 생활을 하며, 수행자의 근본을 다짐

1956년 6월 ~ 12월

지리산 쌍계사 탑전에서 효봉 스님을 모시고 시봉함
7월 사미계를 수계함

1957년 ~ 1960년

- 1957년 1월 ~ 1957년 4월 전북 고창군 선운사 수선안거 진행함
- 1957년 4월 가야산 해인사 강원에서 생활하며 학문에 정진함
- 1959년 3월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자운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계함
- 1959년 4월 해인사 전문강원에서 명봉화상을 강주로 대교과 졸업함

1960년 ~ 1961년

3월 윤희 스님의 부름을 받고 통도사에서 <불교사전> 편찬 작업에 동참하다 서울에서 <불교사전> 출판을 끝내고, 5월 중순 가야산 해인사로 내려와, 타고난 문재(文才)를 발휘하여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뜻을 세움

1962년

<선가귀감>을 번역하고, <불교성전>에 실릴 원고를 손질함

1963년

- 대한불교 조계종 기관지인 대한불교 大韓佛教(1980년 11월 언론 통폐합 때 폐간되었다가 그해 12월 21일 <불교신문>으로 속간) 신문에 '소소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불교설화 및 시, 논단을 기고함
- 63년 봄 : 종로 사상계사(思想界社)에 장준하 선생을 만나러 간 길에 함석헌 선생을 처음으로 만남

1964년 ~ 1968년

- 1964년~1967년 까지 명확한 행장 자료는 찾기 어렵다. 1964년 1월 해인사를 떠나 고행(苦行)의 길을 떠난 스님이 1964년에도 '소소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대한불교에 글을 계속 기고한 것으로 보아, 해인사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며, 해인사와 송광사 선원에서 수선안거(修禪安居) 한 것으로 보임
- 1964년 출범한 동국역경원의 역경위원으로 '불설구색녹경', '대장엄논경' 등을 번역해 총 12편의 설화를 소개함
- 1964년 10월 25일 「대한불교」에 3회로 나누어 기고한 '부처님 전상서(前上書)'는 스님의 불교 혁신관을 대변한다. 이 글은 부처님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의 글로 간결한 문장, 호소력 있는 내용, 현실 종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생동감 등이 어우러져 당시 불교인들의 심금을 울린 명문장으로, 기존 설화를 쓸 때와는 반응이 달랐음

● 67년~68년에는 해인사 강원에서 강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1968년 3000배에 대한 '굴신운동' 글로 인해, 서울로 옮겨 불교신문 논설위원, 동국역경원에 참여함

1969년

서울 봉은사 판전 아래 '다래헌'이라는 편액을 걸고, 다인과 교류하며 차 맛을 알아간다. 운허 스님의 요청에 의하여 동국역경원 개설에 참여하였던 스님은 역경위원, 편찬부장으로 활동하며, <법화경>, <숫타니파아타> 등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

1971년

● 3월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에 수필 '무소유'를 발표함
● 함석헌 선생을 비롯하여 양심과 용기의 상징인 이병린 변호사, 신교계의 큰 어른인 한신대의 김재준 목사, 당대의 사학자인 천관우 선생이 주축이 되어, 4월 19일 서울 대성빌딩에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법정 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으로 참가함

1972년

● 서경수 동국대 교수 등과 함께 <우리말 불교성전>을 출간함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글로 불경을 읽게 되었다. 기복신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책에는 스님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 "팔만대장경을 새긴 사람들이 어디 자기 이름을 새겼던가?" 하여 결국 저자 대신에 "불교편찬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
● 스님의 첫 저서 「영혼의 모음」을 발간함
● 1972년 4월 월간지「샘터」에 처음으로 글을 연재함

1973년

● 대한불교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사 주필 역임

● 함석헌, 장준하 등과 함께 유신 철폐, 개헌 서명운동을 참여하며, 함석헌의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참여함

1975년

● 1975년 4월 8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체포된 도예종 등 8명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판결을 받은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1975년 4월 9일 새벽에 형이 집행되어 사망하는 것을 목격한 스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4월 19일 조계산 송광사 산중 빈 암자터(자정암터)를 둘러보고 온다. 이후 8월 17일 장준하 선생이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추락사로 사망한다. 그때까지 늘 일선에 있던 스님은 1975년 10월, '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자책하며, 송광사 자정암터에 불일암(佛日庵)을 짓고, 독서와 수행 그리고 원고지를 통해서 홀로 있으면서도 대중과 함께하는 비폭력운동을 전개함

1976년 4월

스님의 대표적인 저서인 「무소유」를 발간함

1984년~1987년

송광사 수련원 원장을 역임한다. 1971년부터 구산 스님이 시작한 송광사 선수련회는 법정 스님이 수련원장을 맡으면서 크게 확산됨
또한 경전 읽기 모임의 지도 법사를 맡아 독송 교재로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번역하여 <나누는 기쁨 - 보현행원품(1984년)>을 발행함

1987년~1990년

보조사상연구원 원장을 역임함

1987년 말 미국 LA 송광사 분원 '고려사에서 김영한 여사(1999년 작고)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샘터에서 출간되는 스님의 저서를 읽고 한 생각을 일으

켜, 자신의 소유인 대원각 부지 일체를 법정 스님에게 기증할 뜻을 밝힌다. 그러나 스님은 '평생 주지 노릇을 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주지가 될 생각은 없다'며 완곡하게 사양함

1992년

4월 19일 저작 활동으로 명성이 높아져 끊임없이 찾아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정든 불일암을 뒤로 하고, 강원도 오대산 중턱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고, 수류산방(水流山房)이란 현판을 달고 홀로 수행정진 함

1993년

• 1993년 7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이유로 독립기념관, 경복궁 경회루, 창덕궁 부용정 연못의 연꽃이 모두 없어지는 기막힌 사실과 마주하게 된 스님은 그 어이없는 심정을 동아일보 칼럼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는 글로 발표하며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지적함

• 1993년 8월 순수 시민운동으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송광사 말사인 종로 법련사에서 주창하고, 주변의 뜻있는 이와 함께 준비모임을 가짐

• 1993년 10월 10일 프랑스 최초의 한국 사찰인 파리 토르시 주택가에 송광사 파리 분원 길상사(프랑스 명칭은 '명상의 집(maison de meditation))를 개원한다. 유럽 순례 도중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불자 교포들과 유학생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재불(在佛)화가들과 함께 뜻을 모아 법당을 마련하는데 나섬

1994년

• 1월 13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추진 위원 모임을 처음으로 법련사에서 가지고,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로 운동의 주제로 각 실천 방안을 설정한다. 3월 4일 법련사 영산대법전 불사 관계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 사무실을 종로구 운니동의 오피스텔로 이전하여 개원함

• 1994년 3월 26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선포 기념행사로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법정 스님과 함께 하는 실천 큰 모임, 출발 맑고 향기롭게' 대중 법문을 개최함

1995년 6월 13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조용히 정착되면서 김영한 여사가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기증하겠다는 뜻을 네 차례나 거절해오던 법정 스님은 주변 사부대중의 간청을 수락하여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근본도량으로 개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6월 13일 그 터와 일체 건물을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분원 '대법사로 등록하고 현문 스님을 주지로 취임함

1996년 12월

회원이 늘어나고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모임의 공신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모임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음으로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으로 취임 (이때 스님은 부득이 '이사장'이라는 세속 직위를 받았으나, 서류상의 직책 일뿐이라며, 이사장 대신 '회주(會主)'라는 호칭을 사용함)

1997년

• 1월 29일 '대법사'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吉祥寺)로 이름을 바꾸어 등록하고, 길상사 창건 준비인 모임을 구성함

• 2월 14일 길상사 초대 주지로 청학스님이 취임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수십 년간 한식당으로 운영되었던 흔적을 일소하고 주요 건물을 극락전, 설법전, 범종각, 요사채, 시민선원 등으로 개조하는 도량 정비 불사에 박차를 가함

1997년 12월 14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법회를 봉행한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월주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관응 스님(직지사 조실), 장익 카톨릭 주교, 박청수 원불교 교무 등 종교계 원로 지도자가 참석하여 길상사의 창건을 축하함.

1998년 2월 24일

명동성당 축성 100돌 기념 초청 강연 ‘나라와 겨레를 위한 종교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1,800명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강연을 함으로 한국 사회의 종교 화합에 기여함

1998년 ~ 2003년

- 글 쓰는 것 외에 대중 법문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도량 불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길상사 창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길상사에서 격월로 대중 법문을 통해,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기반을 다짐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명예 퇴직자를 위한 수행과 휴식의 공간을 마련, 서울 제기동 보문선원과 연대해 매일 300명 이상의 노숙자에게 점심 무료 급식 사업 진행,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반찬과 김장을 담아 전달하는 등 장학사업, 생태사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함
- 2003년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창립 10돌 기념으로 서울 길상사를 비롯하여 광주모임, 경남모임, 부산모임, 대구모임 순회강연을 펼침
- 프랑스 파리 길상사 개원 10주년 기념 법문을 진행함
- 2003년 12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회주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창립 시부터

함께한 임원들의 거듭된 만류로 철회함

2004년

격월로 해오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의 대중 법문을 봄, 가을(연 2회/4월, 10월)로 진행

2005년 ~ 2007년

「맑고 향기로운 책」을 월 1권 선정하여 3년간 총 36권을 회원 및 신도에게 읽기를 권유하고, 교도소, 군부대에 도서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독서문화 확대 운동을 펼침

2007년 ~ 2008년

- 10월 우연히 병원에 들렀다 폐암 진단을 받음. 이 병고도 당신을 찾아온 친지중 하나이니 어르고 달래며 지내겠다는 것을 친지 및 상좌스님이 간곡하게 수차례 권유하여 치료를 받음
- 2008년 2월 치료를 마치고 길상사에서 정기적으로 대중 법문을 하고 글도 쓸 정도로 회복함

2009년 4월

폐암이 재발하여 요양을 함. 4월 봄정기 대중법문, 5월 부처님 오신날 대중 법문을 마지막으로 설함

2010년 3월 11일 (음 1월 26일)

오후 1시 51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행지실(行持室)에서 세수 78세, 법랍 55세를 일기로 입적

- 행장 정리 : 편집자 주

적은 것으로 만족하라

글·법 정(法 頂)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고뇌도 많다. 그러나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도 적다. 또 욕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고, 하는 일에 여유가 있어 각박하지 않다. 그래서 마침내는 고뇌가 말끔히 사라진 해탈의 경지에 들게 되니 이것을 가리켜 소욕(少欲)이라 한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안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이것을 가리켜 지족(知足)이라 한다.〈유교경(遺敎經)〉

우리에게 구족계(具足戒(비구계))를 설해주신 계사(戒師) 자운(慈雲) 스님으로부터 언젠가 편지의 회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단 여덟 자로 되어 있었다.

‘少病少惱 少欲知足’ 慈雲

이것이 편지의 전부였다. 풀이하면, 조금만 앓고 조금만 괴로워하며 적은 것으로 넉넉할 줄 알라는 뜻.

원래 수행자들의 편지는 간단명료하다. 할 말만을 할 뿐 공연한 인사치레는 도리어 군더더기요 결례가 되기 쉽다.

수행자의 생활 자체가 단순하고 담박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사연 또한 담박할 수밖에 없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적지 않은 편지를 주고받아 보았지만, 그토록 당신의 성품처럼 듄직하고 진실하게 또박또박 박아 쓴 만년필 글씨와 함께 그때 받은 그 편지의 인상이 하도 진했기 때문에 20년도 더 지난 오늘까지 내 기억에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를 가나 물질의 홍수에 떠밀리고 있다. 일반 가정이나 절간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물건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아낄 줄을 모르고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 옛날 같으면 좀 겁거나 때우거나 고치면 말짱할 물건도 아낌없이 내다 버린다.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애끼고 소중하게 아는 그 정신까지도 함께 버리고 있는 것이다.

옛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 가사만한 벌 얻어 걸치고도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법상에 올라가 그 공덕을 찬탄하면서 범문까지 하였는데, 오늘에는 그런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또 예전에는 시주의 물건(物)에 대해서 어떤 절에서나 주의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을 그 어디서도 듣기가 어렵다. 그만큼 오늘 우리들의 의식이 무디어지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지만, 아무리 물건이 흔한 세상일지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소중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다.

가령 화장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이 내 것이 됐건 남의 것이 됐건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코를 좀 풀면서 멩텅이로 뜯어내 쓰고, 뒤 좀 닦으려면서 둘둘 말아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낭비를 한다.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복 감할 짓을 하는구나 하고 안타깝게 느껴진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토록 헤프고 사치스러워졌는지 한번 반성해볼 일이 아닌가 싶다.

오늘 우리들은 또 남보다 많이 가지고 차지하려고만 하지 그런 과욕의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거나 다스리려고는 하지 않는다. 예전 사람들은, 즉 과거의 우리들은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넉넉한 줄을 알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은 많은 것을 차지하고서

도 고마워할 줄도 귀하게 여길 줄도, 또한 넉넉한 줄도 모른다. 그저 늘 모자라 목이 마를 뿐이다.

과거의 우리들은 적게 가지고도 지혜롭고 덕스러웠는데, 현재의 우리들은 많이 가지고도 지혜롭지도 덕스럽지도 못하다. 지혜와 덕이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하루 하루 살아가면서 닦고 쌓아야 하는 것인데,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이 날이 갈수록 시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구산 방장스님께서는 법문 중에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란 말씀을 자주 쓰셨다. 배고프고 추운 데서도 닦을 마음이 우러난다는 뜻. 옳은 말씀이다. 아쉬운 것 없이 너무 풍족하면 거기에 휩싸여 배부른 돼지처럼 무디어지게 마련이다. 마음을 닦는 일은 간절한 정신으로 깨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좀 모자라고 아쉬운 것도 있어야 그것을 갖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도 품게 되는 것이지, 그런 여백이 없으면 기대와 소망도 지닐 수 없다. 가령 어떤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이다음에 형편이 풀리면 저걸 우리 집에 들여놓으리라, 이런 생각만으로도 표정 없이 굳어지기 쉬운 일상에 어떤 탄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할 수 있는 한 그 시간을 뒤로뒤로 미루는 것이 기대에 부풀어 보다 오래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소용되는 것을 단박 구해오면 그런 기대와 소망과 소중한 생각 또한 지닐 수 없다. 막상 구해다 가까이 두게 되면 며칠은 좋고 편리하고 흐뭇하지만 이내 시들해져서 '관리인' 노릇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 좀 아쉽더라도 덜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보다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요즘처럼 날마다 새로운 상품이 쏟아져 나와 우리들의 눈을 어지

럽히고 있는 세상에서 제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월부의 노예가 되어야 하고, 본의 아니게 물건의 '관리인' 노릇을 해야 한다. 아무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처지와 분수가 다른 나조차 그런 것을 가지려는 것은 허영이요 사치다.

적게 가질수록 마음이 덜 흩어진다. 그리고 적게 가질수록 귀하고 소중한 줄을 알게 된다. 귀하고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은 알맹이 없는 빈 껍질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람의 욕망이란 한이 없다. 분수 밖의 욕망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물질만이 아니고 어떤 명예나 지위도 분수를 지나치면 자기 스스로가 불편하고 세상의 비웃음을 사게 마련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자기 분수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

에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가는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남 보기엔 가난한 듯하지만 실상은 어디에도 걸릴 게 없는 부유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 적은 것으로 넉넉할 줄 알고 뭇보다도 살 줄을 알아야 한다. 어디에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천진스런 모습대로 마음 편히 흠가분하게 살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답게 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84

때로 높은 봉우리 위에, 때로 깊은 바다 밑에

글·법 정(法 頂)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달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구축하여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보태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살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제가 90일 전, 수행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형성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보살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가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흐름에 휩쓸려 자주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제 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몸을 허망하고, 아지랑이 같고, 물거품 같은 것이라고 부정적

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몸에 너무 집착해 그 몸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남긴 것입니다.

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몸이 허망하고 물거품 같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몸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지, 수, 화, 풍 네 가지로 화합된 물건이다. 고깃덩어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천하게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 화합되어 이루어진 한때의 유기체이지만, 몸을 단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

다. 몸이 하나의 법당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면 이 몸은 부처가 거처하는 법당일 수 있습니다. 법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부처를 안고 있는 법당이기에 때문에, 그 법당을 늘 청정하게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낡은 법당을 지켜보면서 저는 요즘 세월의 무게라든가 삶의 뒤뜰 같은 것을 가끔 헤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은 주로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병을 동반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노老, 병病의 끝은 몸을 바꾸는 일입니다. 전에는 약이 생기면 노스님들께 드리고 제가 먹지 않았는데, 요즘은 제가 필요해서 가끔 구해다 먹곤 합니다. 그것

이 늙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밤중에 기침이 잠을 깨우면, 전에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침이 아니면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불러 깨우겠는가?'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날이 많지 않을 것이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천식 기침이 어떤 때는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아주 맑고 투명한 의식을 지닐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거기에 삶의 묘미가 있습니다.

살 만큼 살다 보면 부품이 고장 나서 덜컹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거부하기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거기서 많은 것을 깨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허락된 세월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스스로 헤아리게 됩니다.

법당에 들어올 때 제대로 신발 벗어 놓으셨습니까? 절에 들어 와서 처음 배우는〈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에 보면 '신오착타혜(慎誤着他鞋)'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신과 바꿔 신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무신은 비슷비슷해서 바꿔 신기 쉬워서, 저마다 고무신에 자기만의 표시를 합니다. 저는 가끔 꿈에 신발을 잃어버리고 다른 절에 가서 신발을 찾아다니는 꿈을 꾼다. 왜 그런가 추론해 보니, 제가 서울 선학원 시절, 절에 들어와 살 자격이 없는 무질서한 스님들이 와서 남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경

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한번은 조계사에 가 보니 거기 제 신발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무엇인가를 경험하면 그것은 필름에 찍혀서 늘 재생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재생되어 기분이 좋지만, 언짢은 일,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몸쓸 짓을 했을 때도 다시 되풀이 됩니다. 업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동안거 끝이니 예전에 수행하던 스님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매 법상(大梅法常)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신라 때 스님들이 당나라로 이분을 찾아가서 제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도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매화가 많이 피는 대매산에 살았기 때문에 대매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10대에 출가했

는데 온갖 경과 눈에 통달하여 강의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아는 것은 말재주에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깨닫는 데는 방해가 되는구나.”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법상 스님은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나 자신의 경전을 읽어야 되겠구나.’하고 생각하며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당시 큰스님인 마조馬祖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부처란 무엇입니까?”하고 묻습니다. 간절한 물음입니다. 그때 마조 스님이 대답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即心即佛).”

여기서 법상 스님은 크게 깨닫습니다. 의문이 확 풀립니다.

법상 스님이 되묻습니다.

“어떻게 지녀야 합니까?”

마조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스스로 잘 보호해 가지라.”

이 법문을 듣고 법상 스님은 마조 스님을 떠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마음에 드는 산을 만납니다. 그리고 곡식과 채소 종자를 약간 구해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산이 대매산大梅山입니다. 매화나무가 많아서 대매산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인 줄 확신한 그는 더 묻고 배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고 쓸 줄 알면 되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다.”

스승의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법문의 위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은 경전이 많고 그 속에는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한두 마디라도 마음에 닿아서 깨침을 준다면, 그것이 평생 나의 정신적인 양

식이 됩니다. 경전을 읽을 때 그런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으면서, ‘내가 평생 먹고 쓰고 활용해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양식이 얻어지이다.’라는 염원을 가져야 합니다. 건성으로 염불하듯 읽으면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법상 스님은 깊은 산에 들어가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살면서 좌선을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더 닦을 것이 무엇인가?’하겠지만, 바로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 닦는 행위는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일입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의 일이지만 닦음은 늘 지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

니다. 거울이 밝은 바탕을 지니고 있지만 가만히 두면 더러워지듯이, 우리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법상 스님은 산중에서 잣나무 열매를 따 먹고, 연못에서 자라는 연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좌선할 때는 여덟 치(24센티미터)의 쇠로 만든 탑을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옛 스님들을 보면 이런 기행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졸지 않기 위해서, 졸다가 움직이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선방에 있을 때 어떤 스님은 끝이 아주 예리한 송곳을 턱 밑에 대고 좌선을 했습니다. 졸면 찢리니까 졸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법상 스님의 여덟 치 철탑은 그 도량의 창고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문 밖의 세월이 40년이 지났습니다. 한자리에서 40년을 지낸다는 것은 대단한 저력입니다. 지금은 이

리저리 이사를 다니지만, 옛날에는 몇 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터에서 오래 살아야 그 터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런 기상과 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도량에 오래 몸담고 살면 그 수행자가 그 산이 됩니다. 그래서 산 이름으로 그 스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백장百丈 스님, 조주趙州 스님, 임제 스님……. 바로 그 지명이 스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스님의 초막에 갑자기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주장자(선승들이 수행하거나 설법할 때 드는 지팡이) 만들 나무를 찾아서 여기저기 산을 헤매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초막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리를 산발하고 풀옷을 걸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께서 이 산에 들어와 사신 지

몇 해나 되었습니까?”

법상 스님이 답합니다.

“둘레의 산 빛이 푸르렀다가 누레지는 것을 보았을 뿐이네.”

수행자는 과거나 미래에 살지 않고, 오로지 현재를 최대한으로 살고자 하기에 지나간 세월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자 젊은 스님은 나갈 길을 묻습니다.

“산을 내려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흐름을 따라가라.”

법상 스님의 대답입니다. 시냇물을 따라가면 마침내는 사람이 사는 마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능선에 올라가서 능선 길을 찾는 방법이 있고, 능선 길이 너무 높으면 물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때로는 앞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생명을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뇌할 때는 남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 식대로만 살려고 하니, 자신의 자로만 넓은 세상을 재려고 하니,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흐름만 따르는 것도 범속凡俗하지만, 때로는 흐름을 따라가면 가볍게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산을 내려간 그 젊은 스님은 자기 스승인 염관鹽官 스님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40년 전 마조 스님 문하에서 법상 스님과 함께 정진한 도반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40년 전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법문을 듣고 갑자기 사라진 법상 스님의 이야기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염관 스

님은 제자를 다시 산으로 올려 보내어 법상 스님에게 하산을 권유합니다. 이때 법상은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 못의 연잎으로 걸치기에 모자람이 없고, 몇 그루의 잣나무 열매로도 먹고 남았네. 함부로 세인에게 거처가 알려졌으니, 풀집을 옮겨 더 깊은 데로 들어가노라.”

혼자 사는 스님들은 괴팍합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극성맞은 불자들은 제가 어디 사는지 뒤를 밟아서라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 사는 산 이름을 모르는데, “스님, 무슨 산에서 사시지요?”하고 가끔 묻습니다. 또 신문기자들은 저의 거처를 알아냈다고 저한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만 알고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호기심일 따름입니다. 남한테 해 끼치지 않으면 가만히 놓아두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

살림살이를 엿보려고 합니까? 저만 하더라도 누가 제 거처를 알아낸다면,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후보지를 알아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상 스님의 소식을 전해들은 스승 마조는 한 제자를 시켜 법상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게 합니다.

“스님은 전에 마조 선사를 친견했을 때 무슨 도리를 얻었기에 이 산중에 숨어 삽니까?”

법상 스님이 답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기 때문이네.”

“선사는 요즘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즘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非心非佛)’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을 듣자 법상 스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놈의 늙은이가 사람을 홀리고 있군. 비심비불이라고 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오로지 즉심즉불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스승 마조 선사는 감탄합니다.

“매실이 다 익었구나(梅子熟也).”

자신의 제자가 바른 경지로 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때부터 대매산에는 2, 3년 안에 6, 7백 명의 수행자들이 모여들어 호성사라는 절이 생겼습니다. 이때 신라의 가지(迦智, 충원(忠彦) 스님 등) 이 법상 스님의 법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확신이 그의 삶을 늘 새롭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확신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말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참선을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기도 누가 와서 참선보다 엄불

이 낫다는 식으로 속삭이면 그런 말에 흔들려서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님이든 거사이든 보살이든 잘 안 된다고 다른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여전히 부처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마음은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적인 체험이 없으면 관념적입니다. <화엄경>에 보면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내적인 체험을 거쳐야만 공덕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단지 믿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팎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믿고 행하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법상 스님은 88세에 세상을 하직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來莫可拒 往莫可追).”

이 말이 지금까지 승가에 전해 내려옵니다. 사람을 피해 숨어 살던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열매는 제대로 익어야 열매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익기 전에는 열매일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때로 높은 봉우리 위에 우뚝 설 수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깊은 바다 밑에 잠겨야 합니다. 바로 이 비밀이 법상 스님의 그런 생애의 소식과도 이어집니다.

선지식(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서 밖으로 나설 필요가

행복한 삶

글·법 정(法 頂)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또 이름에 팔리지 마십시오. 아무개 스님, 아무개 누구 하는 이름은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나무든, 꽃이든,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심을 일깨워 준 그런 존재자가 곧 내 스승이자 선지식입니다. 우리가 헛눈 팔지 않고 깨어 있으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러한 스승과 마주치게 됩니다. 스승을 결코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서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

어진 현실 상황을 거부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거기에 삶의 묘미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만월입니다. 음력 보름이 만월일 때가 있고, 열엿새가 만월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 달을 보니 달이 덜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충만하고 가득 찬 달일 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오늘 밤, 달에서 만나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2003년 2월 16일 동안거 해제 법문 —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무소유를 입다’

3월 8일(일) / 오후 1시 30분 / 설법전



오늘날 우리들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줄을 모른다. 사실 행복의 조건이란 큰 데 있지 않고 작은 데 있다. 사소하고 조출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그저 큰 것과 많은 것만을 바라고 동양 최대와 세계 제일을 원하기 때문에 늘 갈증의 상태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

행복의 비결은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다. 사람이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크게 나누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자기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멍들게 하는 분수 밖의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소유의 좁은 골방에 갇혀 드넓은 정신세계를 보지 못한다.

*

우리가 행복하고 보다 뜻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그때그때 자신의 분수와 처지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 소유를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 생활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요체다. 자신의 분수를 망각한 채 소유에 마음이 빼앗기면 눈이 흐려져 인간적인 마음이 움트기 어렵다.

*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행복한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은 다 불행한가? 이와 같은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외부적인 조건만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살 줄 모르면 불행하고, 적게 가졌으면서도 살줄 알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만 있지 않고 내적인 수용, 즉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 즉 정신적인 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더미 앞에서도 우리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행복의 움이 트는 것이지, 물질은 한때에 불과할 뿐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합니다. 가령 시장에서 남이 안 가진 물건을 사다가 집에 놓아둬 보십시오. 며칠은 좋지만 한두 주일 지나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물건입니다.

*

행복은 조화로운 삶에 있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가장 알맞은 상태, 자기 분수에 맞는 상태입니다. 조금 아쉬운 듯 가져야 합니다. 절

제의 미덕에 기반을 둔 검소한 생활 습관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이룹니다.

*

세상의 복잡한 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념이 확실한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평소에 세운 원과 나누어 가진 덕행의 잔고가 있기에 세상사에 부딪쳐도 중심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지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정하고 평화롭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

인간관계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내 마음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자 대상입니다. 어디에도 걸림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삶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물론 어느 정도 관계는 있겠지만 행복은 가진 것에 의해서 추구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행

복을 느끼며 살고 누군가는 불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

행복의 문제는 소유와 밀착되지 않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동네에 가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친절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고 밝게 삽니다. 네팔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걱정해야 할 일은 경제 수치가 아니라 점점 전락해 가는 인간성입니다.

황폐화된 인간은 많이 가질수록 더 해롭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환경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을 채우려고만 할 게 아니라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출하고 사소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안빈낙도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못한 생활환경에서도 찌들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인생관, 이것이 우리 선인들이 지닌 처세훈입니다.

*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항상 지나온 과거나 미래 쪽으로 달려갑니다. '왕년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또는 '이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등등 현재에서 벗어나 늘 지나가 버린 과거와 다가올 미래 쪽으로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전생의 일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곳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순간의 현장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회피하면 자기 존재가 사라집니다. 늘 불확실한 미래 쪽으로 눈을 팔기 때문에, 현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조출한 삶과 드높은 영혼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살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

소유를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신활동을 자유롭게 한다. 소유에 눈을 팔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로 써 족할 뿐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 곧 행복의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향기로운 한잔의 차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고, 난롯가에서 읽는 책에도 그 행복은 깃들여 있다. 눈 속에

피어 있는 한 가지 매화나 동백꽃에도 행복은 스며 있다. 개울물 소리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만 지닐 수 있다면, 우리가 누리하고자 하는 그 맑고 향기로운 삶은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그릇에 알맞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당신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

행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절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친 것은 행복을 침식한다. 사람끼리 만나는 일에도 이런 절제가 있어야 한다.

행복이란 말 자체가 사랑이란 표현처럼 범속으로 전락된 세태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이란, 가슴속에 사랑을 채움으로써 오는 것이고, 신뢰와 희망으로부터 오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서 움이 튼다.

*

돌이켜보면 행복의 조건은 여기저기 무수히 놓여 있다. 먹고 사는 일상적인 일에 매달려 정신을 빼앗기고 지내느라고 참된 자기의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몫의 삶인지를 망각한 채 하루하루를 덧없이 흘려보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것저것 챙기면서 거두어들이는 일을 우선 멈추어야 한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지닌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꽃처럼 피어난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이웃과 나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이웃의 행복이 곧 내 행복으로 이어진다.

*

가을밤이면 별빛이 영롱하다. 도시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데니 방 안에 별빛을 초대하면 어떨까 싶다.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거공간에서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라면, 시끄러운 텔레비전 스위치를 잠시 끄고 전등불도 좀 쉬게 하고, 안전한 장소에 촛불이나 등잔불을 켜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한때나마 촛불이나 등잔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그윽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청승맞다고 생각하면 이 또한 어쩔 수 없지만, 빛과 소리가 우리 심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도 행복해지는 작은 비결이다.

*

우리가 불행한 것은 외부적인 여건보다도 묵은 틀에 갇혀 헤어날 줄 모르는 데에 그 요인이 있을 것이다. 마음에 걸린 것이 있어 본 마음인 그 따뜻함을 잃으면 불행해진다.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야 거기에 행복의 두 날개인 고마움과 잔잔한 기쁨이 펼쳐진다.

당신은 행복한 쪽인가, 아니면 불행한 쪽인가. 한 생각 크게 돌이켜 다같이 행복의 쪽에 서기를 비는 마음이다.

*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행복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사는 일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예쁜 찻잔을 골라주고, 밑반찬을 만들어주고, 손녀를 안아주는 일에서 그날의 행복을 누린다. 며느리를 귀엽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행복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 아버지가 퇴직을 하면 고향에 돌아가 된장을 맛있게 담아 친지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다. 벌써부터 솔바람 맑은 물 oo된장이란 이름도 지어 놓았다.

전해 듣는 마음도 싱그러워진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도 행복해진다.

*

현대인들은 행복의 기준을 흔히 남보다 많고 큰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데 두려고 한다. 수십 억짜리 저택에, 또 몇 억짜리 자동차에, 몇 억짜리 무슨 무슨 회원권을 지녀야 성에 차 한다.

물론 행복은 주관적인 가치이므로 한 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적거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모자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할 줄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들과 정을 나누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살아 있는 생물들과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한다.

석창포와 자금우 화분을 햇볕을 따라 옮겨주고 물뿌리개로 물을 뿜어주면서 그 잎과 열매에 눈길을 주고 있으면 내 가슴이 따뜻해진다. 장작이 타는 난롯가에 앉아 돌솥에서 찻물이 끓어오르는 '솔바람 소리'에 귀를 모으고 있을 때도 내 가슴은 따뜻해진다.

*

비슷한 여건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에 고마워하고 만족하면서 밝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어둡고 거칠게 사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묻는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더 물을 것도 없이 나는 행복의 대열에 끼고 싶지 불행의 대열에는 결코 끼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은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하고, 불행은 딛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

*

누구나 바라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이나 불운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은 순간순간 그가 지닌 생각대로 되어간다. 이것이 업(카르마)의 흐름이요, 그 법칙이다.

*

무슨 일이든지 흥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해서 안 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그대로 충만된 삶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건 흥미가 아니고 야심입니다. 야심에는 기쁨이 없고 고통이 따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주의 커다란 생명력의 작용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체인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통해서 전체인 우주로 합일되어야 합니다. 둘이 아닌 법(不二)이란 이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되면 어깨를 활짝 펴고 삶의 한복판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

행복의 조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단순하고 소박한 삶과 고양된 영혼이다. 머리는 무한한 창공에, 발은 굳건한 대지에, 단순 소박한 삶과 드높은 영혼이 우리들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모든 일에 영혼이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

다.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행복은 온갖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데서 움이 틈니다. 복잡한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다 부려 놓고 그저 무심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의 씨가 틈니다.

*

우리는 미래에 이것저것 일을 다 마치고 시골에 내려가서 집을 한 채 지어 그때부터 행복하게 살겠다는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음에 이루어야할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잠시라도 행복을 누렸던 그때는 한 순간이었습니 다.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지 다른 시절, 다른 때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로 그 순간에 행복을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기회, 특정한 시간에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보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이웃에게 덕을 나누어 주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멸절한 육신을 가지고도 무기치하게 하루하루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

묵은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글 • 학명선사

묵은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 발췌 : 「홀로 사는 즐거움」 겨울 가고 봄이 오니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법회」

2월 19일(음. 1월 26일) / 오전 11시 / 설법전

「법정 스님 사진전」

2월 18일(화) ~ 3월 11(수) / 길상 선원

복 많이 지으세요.

글 • 고 현

〈잡아함경(雜阿含經)〉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다. 부처님 재세 시 인도에 한 부자가 네 명의 아내를 두고 꿈같은 세월을 살고 있었다.

첫째는, 잠시도 떨어져서는 못 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내였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 처절하게 다투어 경쟁 끝에 겨우 얻은 아내였고, 셋째는, 이따금 생각나면 찾아가 만나는 그만그만한 괜찮은 아내였고, 넷째는,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났나 후회하며 하인 취급하는 아내였다.

이 부자는 죽을 때가 되자 돌아올 수 없는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음을 네 명의 아내에게 설명하고 함께 동행해주길 부탁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동행할 수 없다고 냉혹하게 거절 했다. 둘째는, 여행 준비물은 챙겨주겠지만 동행만은 못 한다고 거절했다. 셋째는, 성문 밖까지 배웅은 하겠지만 그 이상 동행은 또 거절했다. 넷째는,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다며 여행 준비를 바쁘게 서둘렀다.

꿈직이 사랑했던 세 여인에게는 모두 거절당했지만 그토록 미워하고 하인 취급했던 넷째 부인만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풀어 말씀하셨다.

“첫째 아내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나의 ‘육신’이고, 둘째는 재물, 권력, 명예인 나의 ‘재산’이고, 셋째는 부모 형제 피붙이인 내 ‘혈육’이고, 넷째는 평생 내가 지어놓은 ‘업’이었느니라.

비구들이여! 나의 육신, 재산, 혈육은 그토록 귀하게 여기면서 어찌하여 선업(善業) 쌓는 일만은 하인 취급하며 미워했으니 다음 생에 무엇을 더 기대 하리오. 모름지기 마음을 잘 닦아 수행의 덕을 쌓고 선업 또한 항상 행할지니라”고 가르치셨다.

연초가 되면 모두들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하고 인사들 한다. 받을 만큼 복들 지으셨는지……, 지어놓지 않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닦지 않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지혜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복은 타인을 위해 지어야만 쌓인다. 바로 선업을 뜻한다. 그래서 공부가가 적당히 익은 불자들은 그 의미를 잘 알기에 ‘복 많이 지으세요’라고 인사한다.

‘적선’이란 단어가 있다. 쌓을 적(積) 자에 착할 선(善) 자를 써서 ‘선을 쌓는다’ 즉 복을 짓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손복’이라는 단어가 있다. 잃을 손(損) 자에 복(福) 자를 써서 ‘복을 잃는다’

즉 복을 까먹는다 라고 한다. 두 단어는 극과 극이다.

쌀 한 톨, 종이 한 장, 말 한 마디, 마음 한 자락도 함부로 버리고 잘못 행하면 불가에서는 ‘복 감할 짓’, ‘복 터는 짓’, ‘복 달아날 짓’이라 하여 엄히 가르치는 복도, 적선도, 손복도 모두 불교에서 유래된 단어들이다.

지산동으로 텃밭을 옮긴 지 벌써 두 해가 훌쩍 지나갔다. 구참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운영위원과 후원가족 영입에 필사적으로 뛰었다. 아무리 복을 파는 ‘복 장사’라 해도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도저히 못 할 짓이 또 이 노릇이다. 뜻이 통할 만한 동료나 선후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례 부탁이나 카탈로그 서문을 써달라고 찾아온 제자들, 초등학교 동문에서 대학 동기들까지, 이따금 찾는 카페나 요식업 사장을 비롯, 심지어 천주교에 다니는 90을 바라보는 노모까지 끌어들이다 보니, 운영위원 10명에 일반 후원가족 3백 명 정도가 회복되었다. 2년 치 목표치고는 괜찮은 성적이다.

그런데 예전처럼 느긋하게 권할 때는 몰랐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 부지런을 떨다 보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눈에 잡혔다. 불가에 ‘권선도 면선(面善)’이라는 말이 있다. 선을 권해도 안면 있는 사람부터 찾는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이 만드신 맑고 향기롭계의 설립정신과 철학을 이 모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기부해준 회비 액수와 동일하게 연말 정산 때 세금감면을…… 직업을 의심받을 정도로 구차스레 설명을 해도 끝까지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설명도 끝나기 전에 시원스럽게 회원카드를 써준 사람도 있다.

복 짓는 건 학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죽도록 공부하여 외국에서 석, 박사 학위 받은 머리 좋은 교수들도 때로는 ‘무반응’이 답이고, 부모 복이 짧아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는지조차 희미한 식당 주인은 ‘실

한 생각 일으키면

글 • 변택주

천행'이 답이었다. 대학교수라 해도 한 달에 만 원 한 장 복 짓기 어렵고, 요식업 주인은 무리하지 말라 해도 털적 5만 원씩 적선한다. 역시 복 짓는 일은 지식이 층만한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하는 일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좋은 일에 원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해서 복인복과福因福果라고 했고, 복이란 착하고 좋은 일과 인연을 맺게 해준다 하여 복연선경福緣善慶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복전福田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내가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인가는 일체一切가 유심조唯心造인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

선과 악은 한 밭, 한 자리에서 나오기에 복과 죄는 지은 대로 간단단가. 복 장사꾼 자주 만나는 것도 그대 복이다. 복 많이 받고 싶거든 새해에도 “복 많이 지으세요.”

고현 •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牛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광주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연꽃 캐릭터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맑고 향기롭게의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해주었다.

* 참고로 이 글은 고현 교수님의 저서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에 수록된 글로 현재 맑고 향기롭게 광주모임은 지산동에서 산수동으로 자리를 옮겨 힘겹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양나눔 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 사람 사상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가슴이다. 중심에 있다는 뜻은 사상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 사람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잘못이 있을 때,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반성하라는 말을 해왔다. 가슴을 강조하는 것은 가슴이 바로 관계關係 장場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커다란 장이 다름 아닌 바로 가슴이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논리보다는 관계를 우위에 두고자한다면 우리는 이 '가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는 대체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토록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이도 드물지 않다.

밥을 남겨 어려운 이웃이나 뜨내기장사치나 탁발승에게 보시하는 '석덤'이라는 관행이 있었다. 좀 사는 집들에서는 끼니에 밥 지을 쌀을 낼 때 식구 먹을 분량만을 뒤주에서 퍼내는 것을 부덕不德으로 쳤다. 식구 먹기 알맞은 량에 세 사람 먹을 쌀을 덩으로 얹어낸다 하여 '석덤'이다. 석덤으로 남은 밥은 이웃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나 갑자기 손님이 들거나 하면 밥을 얻으러 온다. 덩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그 집에 큰 일이 있거나 농사를 지을 때 사람 품이 필요하면 품앗이로 덩값을 치른다. 또 주막이나 식당이 없는 시골에서 소금장수, 젓갈장수나 과객들에게 차려내는 것도 이 덩밥이다. 어렵고 없는

사람과 공생 공존하는 아름다운 미풍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잘살게 되면 그때 가서 남과 나누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와 함께 ‘쇠털처럼 많은 날’이란 말을 쓰면서 무슨 일이든 쉽사리 내일로 미룬다. 과연 쇠털처럼 많은 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어느 광고에 나오는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 말처럼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르는 일.

“나누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미루면 후회만 남습니다.” 하는 법정 스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지금만이 살아 숨 쉬는 시간이다. 내일은 없다. 세상 나누는 일이 모두 돈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눌 수 있는 무기가 있다.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재칠시無材七施’이다.

첫째, 안시眼施. 눈으로 나눔. 눈은 마음을 담는 창이란 말이 있듯이, 눈으로 하는 말이 한 마디 말보다 더 울림이 크다. 상대에 대한 호의를 담아 따뜻하고 그윽한 눈빛을 나눌 일이다. 늘 좋은 눈으로 남을 대하면 천안天眼과 불안佛眼이 열린다. 눈길에 따라 사람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해진다.

둘째, 화안시和顏施. 얼굴로 나눔. 얼굴에 가득 넉넉하고 따사로운 웃음을 담아 부드럽고 살갑게 대하는 일이다. 아침에 부드러운 얼굴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가 꽃피어나고, 하루를 부드러운 얼굴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꽃핀다.

셋째, 언사시言辭施. 말로 나눔. 덕담. 언제나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씨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사랑 담은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이 그것이다.

넷째, 신시身施. 몸으로 나눔. 내 몸을 놀려 적극 나서서 남을 돕는 일. 상대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거나, 상대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일.

다섯째, 심시心施. 마음으로 나눔. 다른 이를 대할 때 자비심을 갖는 일. 마음을 늘 평화롭게 하여 일회일비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일이다.

여섯째, 상좌시床座施. 자리를 나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일. 경쟁자 자리를 빼앗지 않고 외려 더 넓게 보고 그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일곱 번째, 방사시房舍施. 방과 집을 나눔. 자기 집을 남에게 하룻밤 숙소로 내어 주는 일이다. 또는 다른 이에게 쉴 만한 공간을 내주는 일이다. 상대가 힘들고 괴로울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줄수록 내 존재 영역이 더 넓어진다.

이런 나눔은 재산이 많고 적은 데 상관없이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는 나눔이다. 따뜻한 말, 고운 눈길, 좋은 시간, 기꺼운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결남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법구경 앞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씀이 세상을 밝힌다.

이곳에서의 모든 일이 기쁘기만 하다

글 • 법 정(法 頂)

네 편지 너를 만나 본 듯 반가이 받아 보았다. 그리고 더욱 기쁜 것은 내 꿈속에서처럼 네가 합격했다는 소식이다. 결코 낙담은 말아라. 아무 학교에서고 마음만 굳게 지니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좋은 교훈 삼아 대학에만은 훌륭한 학교엘 가야 된다. 남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힘껏’ 공부하여라. 한 평생을 두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들 하지만, 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기회는 학창 시절뿐이 아니겠느냐?

절 아래 동구길엔 벌써 벚꽃이 한창이다. 분명 봄인가 싶다. 이곳 절 주위를 뺨뺨이 둘러싸고 있는 숲(전나무 숲)에 들면 노루가 뛰어다니고 꿩이 푸덕이고, 산비둘기가 구구댄다. 그리고 비 개인 뒤의 개울물 소리가 사뭇 여물다. 밤이면 나무 사이로 내다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푸르게 초롱인다.

자연은 아름답다. 이런 곳에선 세상에서 부리던 거친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져 버린다. 맑은 공기를 마셔 가며 공부하기가 실로 즐거웁다. 옷이 겹어지면 누구에게 신세질 것 없이 제각기 빨래를 하고 또 풀을 해서 입는다.

아침이면 세 시에 일어나고, 밤 아홉 시엔 잠자리에 든다. 수면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모든 일은 습관에 달렸다. 잠은 잘수록 더 오는 것이니까. 한 식날에는 진달래꽃을 따다가 화전 떡을 해먹기도 하고…….

이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게는 한량없이 기쁘기만 하다. 진즉 이런 곳에 못 온 것이 후회된다.

내 출가에 대해서 어머니는 태순에게 원망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너의 편지를 보면) 나는 오히려 태순에게 감사한다. 누구 때문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올바른 일인 이상, 그러니까 이 뒤엘랑은 어머니더러 누구에게고 원망은 말라고 하여라. 불효한 나를 원망할지언정, 그곳에 있는 내 벗들은 다 훌륭한 벗들이니 높이 섬겨라.

종환이도 성남이도 이젠 그만 장난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일러라. 저번 편지에도 그랬지만 너는 내 방에서 공부해야 된다. 학생들을 넣더라도 잘 알아보아서 공부 잘하고 착실한 사람을 택하여라. 내 책들 잘 있다니 마음 놓인다. 벽에 붙은 그림들에게도 안부 전해 주라…….

복이 어머니께도 안부 전하고, 그리고 대균네 형님, 형수 다들 평안하시데? 대균네 형수씨한테 내가 평안하신가 안부 묻더라고 꼭 일러 주라.

성직아.

네가 내 대신 어머니의 아들 노릇을 해 줄 줄 믿는다. 시키는 말 잘 듣고, 잘 섬겨 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부탁은, 절대로 내 거처(있는 곳)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서울이나 일본 같은 데 가 버렸다고 해 두어라.

네 사진 있거든 (없으면 그냥 두고) 한 장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럼 장난들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라. 잘 있거라.

철

1956년 4월 12일

이제는 내게 올 편지도 없으려니와 혹시 있으면 보내 주든지 귀찮으면
편지 내용이나 이번처럼 적어 보내 줘라 - 철

* 발췌: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읽는섬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는 법정 스님이 출가 직후 사촌동생인 박성직에게 보내온 편지를 묶은 것이다. 박성직은 어린 시절 한집에서 같은 방을 쓰며 친형제처럼 자랐다. '나 대신 네가 아들 노릇 해 달라'는 스님의 부탁을 받들어 결혼한 뒤에도 법정 스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 편지는 청년 박재철이 승려 법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무소유의 참의미

글 • 김옥림

**분수 밖의 큰 것과 많은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는 늘 목말라 할 것이다.
물속에 있으면서 목말라 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
- 법정 -**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 지수가 낮지만,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행복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삶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은 행복의 지수가 낮은 만큼 행복을 느끼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동을 잘 하고 감사하게 여긴다.

그러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행복의 지수가 높은 만큼 행복을 느끼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일에는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네팔, 부탄 같은 세계 최빈민국 사람들 중엔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자신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크고 좋고 많은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라.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행복의 지수와 행복은 반비례한다. 행복의 지수가 높을수록 불행을 느끼고, 낮을수록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 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시길 본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세심당,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11월~2월은 김장 나눔으로 인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수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든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	--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화'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 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2월 1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2월 2일 ~ 2월 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 해제 및 90일 관음기도 회향	2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불교대학 졸업식	2월 8일	오후 2시	설법전
삼천배 철야정진	2월 8일	오후 8시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2월 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2월 11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2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법정스님 10주기 추모법회	2월 19일	오전 11시	설법전
초하루 기도	2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오후 6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청소년방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2020년 불교강좌 개강 안내

- 불교입문반 - 매주 수요일 - 일시 : 2020년 3월
- 불교대학 - 매주 목요일 - 시간 : 오후 2시 ~ 4시
- 경전반 - 매주 화요일 - 현재 수강등록 받고 있습니다.

무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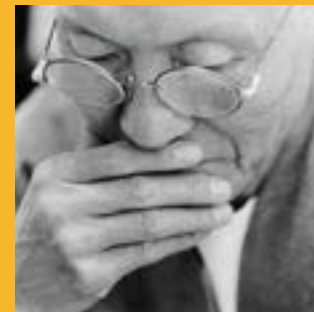
법정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무소유를 입다’

3월 8일(일) / 오후 1시 30분 / 설법전



- 낭독 : 정호승 시인, 김선우 작가, 이계진 아나운서, 변택주 작가, 정인성 시낭송가
- 음악 : 박창근, 김현성, 김은진(해금)